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3.(금) 10:30
(지 면) 2026. 11. 13.(금) 석간

행정안전부, 2027학년도 수능 대비 지진 대응태세 철저히 점검한다

- 포항지진 이후 내진보강·대응체계 개선, 관계기관 준비상황 확인
- 2027학년도 안정적 수능 지원을 위한 지진 대비·대응 대책 논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1월 13일(금)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수능 대비 지진 관련 관계기관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 (참석) 행안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등 13개 부처, 지방정부(16개 시·도, 포항시)

이번 회의는 2017년 포항지진* 발생을 계기로 그간의 제도개선 사항을 점검하고, 오는 11월 19일(목)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관계기관의 지진 대비·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 (포항지진) 2017년 11월 15일, 14:29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규모 5.4(최대진도 VI) 지진 발생, 부상 135명, 이재민 785세대 1,797명 발생 및 수능일 연기(11.16.→11.23.)

특히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험장 사전 안전점검, 지진정보 전달, 시험 중 대피, 긴급 구조·구급 및 비상수송까지 기관별 준비상황과 협업체계를 중점 점검했다.

>> 공공·학교시설 내진보강 확대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 강화

정부는 수능이 연기됐던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건축물의 내진안전성을 높이고, 시험장 안전관리와 지진 발생 시 대처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5년 말 기준 82.7%까지 끌어올렸으며, 2035년까지 100% 달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민간건축

물 역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과 모든 주택에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는 등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 (내진보강) 202,718개소 중 167,687개소 완료('25년 말 기준, 82.7%)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소관 학교시설*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24.9%에서 2026년 9월 말 80.1%까지 높였으며, 남은 시설도 2029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계획이다.

* (내진보강) 31,597개소 중 25,314개소 완료('26년 9월 말 기준, 80.1%)

올해는 전국 1,312개소 수능 시험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를 수능 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시험 관계자에게 문자로 정보를 전파하고 '수능 특별지원 웹페이지'를 통해 시험지구별 계기진도와 대처단계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5월부터는 지진 조기경보와 현장경보를 결합해 진앙 인근 지역에 관측 후 3~5초 내 경보를 발령하는 '지진현장경보'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수능 전·당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 대응체계 가동

행정안전부는 수능 전날인 11월 18일(수)부터 당일인 19일(목)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 긴급 안전점검, 대체·예비시험장 확보 및 비상수송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시험장 안전점검 보완 조치를 마무리하고, 수능 전 감독관과 수험생을 대상으로 지진 대처요령 사전교육 및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인다.

시험 중 지진 발생 시에는 시험지구별 계기진도에 따른 단계별 대처기준을 적용하되, 기상청 대처안내와 현장 상황을 고려해 최종 조치를 결정한다.

※ 가 단계(진도 Ⅰ~Ⅲ): 시험 계속 / 나 단계(진도 Ⅳ~Ⅴ): 시험 일시 중지 → 책상 아래 대피 → 안정 후 시험 재개 / 다 단계(진도 Ⅵ 이상): 시험 일시 중지 → 책상 아래 대피 → 교실 밖 대피

수능 전 지진 발생 시 시험장 피해 여부를 확인해 대체시험장 활용하거나, 필요시 수능 연기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다.

경찰청·소방청 및 지방정부는 시험장 주변 질서 유지, 긴급 구조·구급, 수험생·감독관 비상수송 및 안전한 대피 지원 등 즉각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포항지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시설물과 학교시설의 내진성능을 높이고, 지진정보 전달체계와 시험장 대처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고 했다.

이어 “개선된 체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수능 전까지 준비상황을 거듭 확인하고,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계기관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	책임자	과 장	정성은 (044-205-5190)
		담당자	서기관	박성규 (044-205-519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지진 발생 시 국민행동요령**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safekorea.go.kr

지진 발생 시
상황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 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전기·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 확보**



머리를 보호하며 **계단을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대피**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곳으로 대피
※ 차량 이용 금지



재난방송 안내에 따라 **행동**

행정안전부

지진 발생 시
장소별 이렇게 행동하세요!

국민안전24
safekorea.go.kr



책상 아래로 들어가
책상다리를 붙잡고 **몸을 보호,**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계단·기둥 근처에서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밖으로 대피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서 내린 후 계단 이용
※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손잡이나 기둥을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하고,
전철이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



비상등을 켜고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운 후**
열쇠를 꽂아 두거나 차 안에 두고 대피



산에 있는 경우 **산사태에 주의,**
해안에 **지진해일 특보 시**
높은 곳으로 이동